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인문 양식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청 2000년도 제4차 성찬식

2000년도 제4차 성찬식이 오는 1부·5부 예배에 걸쳐서 베풀어진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무혼한 신자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경건함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기쁨, 그리고 성도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마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마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금요집회를 통해 배우는 진리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변하며"(딤후8:18)

충현교회의 금요집회에는 두 가지의 특색이 있다. 한 가지는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팀들의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담임목사를 통해서 매주 선포되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기 어려운 기독교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매주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다. 또한 이 시간이 복음의 핵심을 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유익한 것은 성경말씀 그 자체로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구절로 가득 기록된 유인물은 진리에 대한 주제들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충현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기독교 진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진리를 깨닫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충현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서 더욱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금요집회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준비된 심령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2:15)

2000년도 2차 단기 평신도선교사 모집

수단, 수리남, 우간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기이아나

선교위원회에서는 2천년도 단기 평신도선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파송국가는 수단, 수리남, 우간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기이아나 지역이다. 파송 일시는 2000년 12월에서 2001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파송 인원은 15명 이내로 각 나라별로 2,3명 정도가 선발될 예정이다.

파송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선교에 소명감이 투철한 자 ②본 교회 LMTC 훈련을 받고 총회 단기 평신도선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가능한 자 ④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파송되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의 분야는 ①교회 개척 사역, ②의료 사역, ③제자훈련 사역, ④행정 사역, ⑤컴퓨터 교육 사역, ⑥태권도 교육 사역, ⑦미술 사역 등이다.

제출 서류는 ①단기 평신도선교사 지원서 ②단기 평신도선교사 지원동기서 ③이력서 ④자기 소개서 ⑤사진 4매 (여권용) ⑥추천서(교구장 및 교구 지도 목사) ⑦종합검진표 등이다. 제출 마감일은 7월 9일(주일) 오후 6:30까지이며 면접일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로 통지한다. 서류 제출 및 문의는 선교위원회(선교관406호)로 하기바란다.

7월의 김성관 목사 설교 제목 및 본문

일시	예배	본문	제목
7월 2일	2·3·5부	요 6:53-58	생명의 양식
7월 9일	3·5부	눅 12:1	외식을 주의하라
7월 16일	1·3·4부	딤후 2:9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7월 23일	3·5부	렘 17:13	홀에 기록이 되었으니
7월 30일	2·3·5부	마 10:34-39	자기 십자가

7월의 주요행사

맥추감사절 예배 (2일)
제4차 성찬식 (2일)
절기명회 (6일)
여름수련회 · 여름성경학교
하반기전도대 파송
단기선교 파송

감사로 드리는 맥추감사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창23:16). 오늘은 2000년도 맥추감사주일이다. 맥추절의 의미는 말씀의 열매를 거둔다는 수확의 첫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다. 올해는 성찬 주일과 함께 드려지게 되었으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50:23).

2000년도 하계 농어촌전도 시작

전도위원회는 금주부터 하계 농어촌전도를 시작한다. 매년 진행되는 농어촌전도는 교구, 청년, 대학부, 고등부별로 지정된 농어촌 교회와 연결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도기간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도록 기도서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충현 지체들의 뜨거운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7월 사역일정은 아래와 같다.

교구 및 부서	기간	지역
6교구	7/3-7/5	미산교회(경기도 연천)
8교구	7/3-7/5	양문교회(충북 단양)
10교구	7/17-7/19	반석교회(강원도 원주)
	7/24-7/26	새마을교회(경기도 연천)
11교구	7/24-7/26	교현중앙교회(충주)
대학부	7/17-7/21	부평교회, 북평교회, 셋빛교회, 용산교회(강원도)
청년1부	7/24-8/4	예미중앙교회, 천곡교회, 용석교회, 삼흥교회, 봉정교회(강원도)
학원전도	7/26-7/28	대소원장교회(충주)

단기선교사 파송 허용구 전도사 · 홍수정 사모

그 동안 대학부에서 부지도로 사역에 임해 왔던 허용구 전도사와 홍수정 사모가 단기선교사의 자격으로 7월 5일(수)에 8원대로 출국하게 된다.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자녀로는 6개월 된 딸, 주영이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오요 보혜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땅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10:14,15)

해외입양가족 민박가정 모집

교회에서는 '해외 입양아 및 입양가족을 초청하고자 하여 민박가정을 신청받게 된다.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일시: 7월8일(토) 오후3시 - 9일(주일) / 1박2일
가정: 19기정 61명
문의: 선교위원회(교한 356, 357, 358번)

Beware of Hypocrisy

(Luke 12:1)

“Meanwhile, when a crowd of many thousands had gathered, so that they were trampling on one another, Jesus began to speak first to his disciples, saying: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After Jesus left His lunch engagement at the home of a Pharisee, He found Himself in the midst of a very large crowd. Thousands of people had gathered around Him, most were friends but some were enemies. Jesus' popularity was widespread! The majority of Pharisees, Sadducees, and high priests hated Him because of the influence His teachings had on the Jewish people. They were jealous. Instead of appreciating His blessings upon their nation, these religious people despised them. From their viewpoint, Jesus was not one of them, and it was their responsibility, not His, to preach and teach the things of God. Nonetheless, the crowd and disciples respected Jesus. They wanted to hear what He had to say. And so Jesus, who had just experienced the ideal example of hypocrisy, being cordially invited into a Pharisaic home under the pretense of love and kindness, when truly the homeowner and his other guests hated him and wanted to kill Him, instructed His disciples concerning its dangers.

The first thing He says to His disciples and the listening crowd is,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v. 1). Here, Jesus delivers a very important message, one that every Christian needs to understand and practice. Jesus doesn't want His disciples to become like the Pharisees, religious leaders who only appear virtuous. He wants them to be sincere. He warns them to watch out and be careful about hypocrisy because false appearances don't fool God. There's no secrets between God and man. Also, because hypocrisy damages humanity. It's one of the lowest forms of deception with the most adverse consequences. His words, directed to the disciples, were also meant for the listening ears of His friends and enemies. His warning is a fundamental principle that applies to everyone. Corinthian church's

*Jesus doesn't want
His disciples to become like the Pharisees,
religious leaders who only
appear virtuous. He wants them to be sincere.
He warns them to watch out and be
careful about hypocrisy because false
appearances don't fool God.
There's no secrets between God and man.
Also, because hypocrisy
damages humanity*

*A servant of Christ is a soldier
of God. You have to see the enemy, the devil,
in order to stand firm against his schemes. You have
to see the grace of God and recognize
the salvation of the cross in order to figh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You have to believe
in the Word of God for victory!*

*Let's concentrate on Jesus and the Word of God.
Let's have a watchful prudence in detecting
and escaping the danger of hypocrisy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 correspond to unleavened bread. Unleavened bread lacks pride, the root of all leaven.

My dear friends, whenever the devil is allowed to be placed in between God and man, leaven is produced. The dangerous thing about leaven is that you can't see it! You don't know its there until the outside begins to show signs of its existence. No matter how little is added, leaven will affect the whole batch, the whole church!

Moreover, it's not a slow moving phenomenon. Leaven grows quickly; it spreads fast. As such, it is a very dangerous substance that can spoil a church in no time. Interestingly, it's often contracted from respectable authority figures, especially within the church. During the time of Jesus' earthly ministry, the Jewish nation relied heavily upon the Pharisees, Sadducees, and high priests for spiritual enrichment. Indeed, it was their responsibility to lead the nation of God's people, but Jesus pointed out their bad influence. Therefore, you need to be cautious of hypocritical leaders.

It should be noted that leaven also comes from a variety of other sources. It can come from human love, socialism, and humanity in general. Anything that departs from the pure Gospel may look good, but it will become leaven. If you believe in humans, they will negatively influence you. Amen! It doesn't make a difference how kind, or loving, or generous, or whatever someone else may be, if you depend on that person for your well being, your future, your livelihood, you're in trouble. No one but Jesus can truly help another human being. Sure, God uses other people in administering His grace, but its not them but Him who provides the grace.

A servant of Christ is a soldier of God. You have to see the enemy, the devil, in order to stand firm against his

schemes. You have to see the grace of God and recognize the salvation of the cross in order to figh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You have to believe in the Word of God for victory! Let's concentrate on Jesus and the Word of God. Let's have a watchful prudence in detecting and escaping the danger of hypocrisy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김성곤 목사

외식을 주의하라!

(눅12:1)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밭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에 빠진 사람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예수께서는 곧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였습시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친구들이었지만 몇몇은 예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인기는 이스라엘 온 지경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였습시다. 그들의 민족에게 끼친 예수의 축복을 감사하기는 커녕, 이들 종교인들은 그 축복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자신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전형적인 위선의 예를 경험하신 예수는 곧이어 가식적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바리새인의 집에 아주 정중하게 초대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집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 위선의 위험성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외식은 참된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의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교훈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1절). 여기서 예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단지 인격적으로 덕망 있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진실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위선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단지 인격적으로 덕망 있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진실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위선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겉모습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또한 위선은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음모를
상대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마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선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피하기 위해 본별력 있게 깨어있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거짓된 겉모습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또한 위선은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장 적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저속한 형태의 속임수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또한 들을 귀가 있는 그의 친구들과 원수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경고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기본적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룩 없는 빵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의 글을 썼습니다(고전5:5-7). 누룩 없는 빵이란 교만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교만은 모든 누룩의 뿌리와 같습니다.

외식은 공동체를 파괴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여 드는 것을 방지할 때는 언제나 누룩이 발생합니다. 누룩의 위험성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표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르니다. 아주 소량만이 첨가되어도, 누룩은 빵 전체, 즉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향은 천천히 퍼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누룩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고속으로 확장됩니다. 마찬가지로 누룩은 삼시간에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러한 것은 종종 교회 내에 존경받는 권위자들로부터 발생하고

는 합니다. 예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영적인 추방에 있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상당히 의존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영향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외식이 세상에 만연되어

또한 누룩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근원에서부터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애, 사회주의, 그리고 일반적인 인본주의로부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에서 떠난 그 어떤 것이든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누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멘! 매우 친절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자비롭고, 또는 기타 그 무엇을 행하든지, 그런 것들이 인간을 외식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공과 미래, 멋진 삶을 위해 사람을 외치한다면, 여러분은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만, 은혜를 제공하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너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음모를 상대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마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선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피하기 위해 본별력 있게 깨어있도록 합시다. **다.**

상반기 총동원 전도주일을 바라보며



총동원 전도(이하)

총동원(주일은 많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 중의 한가지이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이 총동원 주일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행사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하며 상반기의 총동원 행사를 다시금 돌아보아 긍정적인 것들을 공유하며 미흡한 부분들을 보충하여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제12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부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부서의 집약적인 총동원 행사보다는, 소그룹 중심의 병행 전도, 강남권 전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학부, 청년부와 같은 부서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이인 유년부, 소년부, 중등1부, 중등3부, 고등부를 대상으로 각 행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총동원 행사는 크게 사전, 당일, 사후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전 준비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2-3개월 전부터 시작한다. 이 준비들은 말씀을 통해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강을 통해 전도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들을 교육하면서 진행된다. 또한 주일·주중·새벽기도회, 기도 릴레이 등을 통해서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부서원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중등1부는 영성물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고등부는 행사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발대식을 가지며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밖에도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 마음에 작정하는 '태신자 품기'를 기본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전도방법으로 노방·학원전도를 실시하는데, 유년부는 각 반 반장을 중심으로 전도 특강대를 조직하여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도활동을 벌였으며, 고등부는 학원 전도대인 '돌로스'를 통한 전도활동을 벌였다. 소년부는 태신자들을 당일 전도 편지 발송을 했다.

당일 행사는 태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교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지며 축하순사와 환영의 순서로 이루어진 교회의 시간을 갖는다.

사후 행사는 태신자 교육과 심방이 주를 이룬다. 고등부의 경우 지난 비전 7000(총동원) 행사 후 기존의 신일반에 6시간을 특별 추가 운영하고, 4-6주 동안 진행하는 세신자 양육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서들이 등반에 앞서 이와 같이 태신자만을 통해 체계적인 양육을 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하 심방과 가정 심방을 통해 태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속에서 돌고 있다.

유년부를 지도하는 김영기 전도사는 "반석이라는 아이는 15명을 전도해 한 반에 속하는 인원을 전도하기도 했다"고 즐겁게 회고하며, "전도에 대한 사랑감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총동원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총동원 행사를 돌아보며 반성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유년부 60여명, 소년부 40여명, 중등부 각 10여명, 고등부 140여명의 행사참석자 가운데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인원은 30%미만이라는 점이 속제로 남아있다. 또한, 한울림 강도사(소년부 지도)의 "전도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인데 행사성으로 인식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단회성이나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될 것인데, 그리고 "교육 부서에서의 총동원 행사는 학생들에게 전도의 훈련을 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교사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고 조국자 전도사(고등부 부지도)는 제안한다.

유년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2-1시까지 학동, 현, 도성 초등학교에서 벌이고 있는 학동전도 활동이나 고등부의 학원전도대인 돌로스의 운용처럼 노방전도, 학원전도 등의 다양한 전도활동을 벌일과 아울러 단기 선교사 양육을 위한 LMTC 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전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국내 전도와 선교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로 대한다.

(박철홍 전도사)

중주경철학교 전도집회

말씀과 찬양의 만남

한 숙정 (집사, 새가목부 교사)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성령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중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임에 있는 말할 나위도 없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참된 중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움츠러드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 특히 어느 사회 한 제도권의 규격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무리들에게 전도하리만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커다란 베행 수백에 있다. 한국 보존의 달을 맞아 나라의 안방을 위해 훈련받은 기간에 있는 중주경철학교 여정과 경찰, 전·의경들에게 경찰전도회는 지난 6월20일부터 오후7시 전도집회를 가졌다. 3주간 스프라트릭 교육 위주로 훈련시키는 생활관은 한반에 2000명정도 교육시킬 수 있으며 여정 600여명이 교육받고 있는데 남학생들도 포기하는 훈련을 한명도 나오지 않아 다 해내고 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기도시간에 전·의경들이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강단에 모인 무리에게 요한복음 14장6절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정해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인 인간들,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개개인인 영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야 함"을 명확한 것보다하여 강력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였다. 전집의 시간에는 196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복음에 전해지는 헌장은 경찰복복화를 위해 기도했던 회원들에게는 기도응답의 시간이었다. 복음이 전해지는 헌장에서 귀한 밀알들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인을 영접하여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을 눈으로 보며 우리는 중보기도에 힘을 더하여야 함을 깨닫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훈련의 장소이기도 함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한 영혼이 전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복음의 열매가 30개, 60개, 100개도 맺혔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날 경찰전도회는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는 강으로 봉사하리한다.

나온자 전구같은 열매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최은아 (청년부)



모 태신앙인 나에게 '전도'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말이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연부는 청년1부 DTC 성경공부부조원씩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가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학교가 시의 변두리에 있는 관계로 통학길이 복잡했는데 마침 학교 근처 연구소에서 카풀게가 있어 흔쾌히 타고 가던 중 골프장 캐디가서 2명과 동승하게 되었다. 낮가림이 있는 나에게 그 시간은 졸음이 부치는 시간이었다. "그냥 이리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에 난 말을 붙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내로 향하는 저하할까지 같이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어쩔수없이 입을 열고 그들의 생활환경들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한명이 나와 동감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순간부터 우리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인양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한명이 중간에 내리자 난 적잖이 당황해하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그때 하남님은 내 마음에 전도의 마음을 주셨지만 계속 부인하였다. 마침내 하남님께선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였다. 그 자매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었다는 것지만 어머니의 신앙이와 자신과의 상관없는 얘기라고 일축해 버리는 자매에게 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까지 술술 해가며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다. 성경님의 인도하심이 어찌되었乎 흥분되었고 안

타가졌다. 정말 그 자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자매가 나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듣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었을 때 우리 각자의 길로 헤어지게 되었고, 꼭 교회에 나가보라는 말과 함께 인사하며 헤어졌다. 난 기도했다. 그 자매가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 일이 잊은 것조차 자매를 보게 되었다. 자매는 술을 먹었는데 벌써 빨간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와 놀이마주치게 되었을 때 난 웃으면서 인사할 수가 없었다. 그 자매 또한 나의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서로 어찌 할바를 몰라 피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매를 기억하시길 것이다. 그 자매 또한 예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시선을 피하던 자매의 눈에 예수님에 대한 부담을 보았기에...

나의 첫번째 일대일 전도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지만, 지금도 감사한 것은 길거리 전도도 간신히 했던 나에게 전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도의 부담을 늦추지 않으신다. 하지만 난 감사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새가족을 위한 안내 ②

충현전도위원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을 이기고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곧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실(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전도위원회가 있다. 그 산하에는 1)전도부, 2)남녀전도부, 3)직능전도부, 4)눔어촌전도부, 5)충현전도대가 있다.

1)전도부에서는 전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2)남녀전도회는 각 교구별 남녀전도회를 지칭한다.

3)직능별 전도부에는 경찰전도회, 교정전도회, 군전도회, 문서전도회, 매스컴전도회, 법조인전도회, 실업인전도회, 의료전도회, 학원전도회, 이이용전도회

가 있다.

4)눔어촌전도부는 이제 막 시골에 접어들어 집중적인 전도계획이 접수되고 있다. 7월중에 사역예정이 나눔전도일적으로 6교구, 8교구, 11교구, 대항부, 청년부, 학원전도회 등이 있다.

5)충현전도대는 흔히 일컫는 '노망전도대'를 말한다. 인파가 많은 지하철입구,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등에서 전도지 등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국가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시입니다라고 수심번 수백번을 외치는 일이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자갈밭이든 옥토밭이든간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열매맺는 일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특별히 접어들었던 전도의 열정을 이면 여름에 펼치고 심으신 분께서는 전도위원회로 연락하셔서 해당 교구, 부서 또는 그 일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석진 기자)



복음의
눈으로
세상보기

우상인가 예절인가?

한국의 천주교를 대표할 수 있는 추기경이 강북구 수유동 독립유공자 묘지에서 6차례 큰절을 했다(동아일보 5월25일자). 이러한 행동에 제사 관계자들은 호감을 했고, 추기경을 수행한 신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추기경은 "심산(김창숙) 선생은 모두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큰절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크리스천이 카테키의 성경재 교수는 "불교와 유교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한국 개신교회는 편협함에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종교에 투철하면 할수록 멀리지만 자신이 없을수록 배타적이 된다"고 보수 선교신학을 비판하기도 했다.

제사에 있어서 절하는 것은 과연 예절인가. 우상숭배인가? 사람들은 곧잘 문화라는 차원으로 어떤 현상을 해석하려고 한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자면 예절이라는 각도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에게 절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과 그의 십자가를 제의시켜 버리던 문제가 전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김동하 목사)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미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신사동에 있었던 양지감리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봉사하시다가 교회가 경기도로 이사하여 새벽기도를 충현교회에 나오신 것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입니다. 아는데 없고 일꾼이 적은 교회에서 권사였을 뿐이라며 겸손해하신다. 새벽기도에 은혜받고 금요찬양집회에서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또 받고 주일예배도 섬기던 교회에 특별한 모임이 없으면 충현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에 은혜가 넘침을 체험하고... 그렇게 2년동안 하시다 교회목사님께 기러기 달고 또 은혜받은 곳으로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 충현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초신자인 성정으로 새가족부에 참여하여 매주 집회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가 연례에 따라 골고루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결코 교회의 건물이 커서 좋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시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내의 그리스도의 편지



인듯 스쳐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불러온다.

지난 주일 오후 4부예배가 막 시작한 즈음, 햇살은 따스하다 못해 뜨겁게 내리쬐며 여름의 시작됨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교회 마당에는 그늘을 찾아 군데군데 모여서 양소를 나누는 교인들의 모습들이 교제를 테마로 하는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 그림을 감상하는 듯했다.

본당 오른쪽 계단 귀퉁이에선 서너 명의 아이들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타석으로 만든 난간을 독점한 채 재잘거리고 있었다. 그 아이들 중의 조금 머리가 큰, 대장격으로 보이는 아이가 "미끄럼을 타자"고 제안했고 다른 아이들은 이내 수긍했다.

대리석 난간은 오래 전부터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수많은 아이들의 미끄럼틀로 표본은 반질거리며 윤이 났다. 미끄럼을 타는 규칙은 '가위, 바위, 보' 한 사람이 잘 못하는지 한번도 미끄럼을 타지 못한 채 사무룩한 표정으로 서있었다. 그 대장격의 아이가 그것을 알아차렸다 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는 진 사람이 타는 걸까 하는 기약"이라는 성찰에 그 아이는 함박 웃음을 지으며 계단 꼭대기로 순식간에 올라갔다. 그 아이는 과연 대장아이의 깊은 마음을 읽었을까.

예뻐들중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한가지의 규칙을 정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머뭇거리리는 인간들을 향해 인간을 구원할 여지가 하나님께 규칙을 바꾸셨다. 그 새로운 규칙은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 아이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다.(요3:16).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었다. 아니, 나는 나의 구원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장아이의 모습을 통해 구원하심이 없었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나에게 각인시켜 주심에 감사한다. (박철홍 전도사)

하나님의 주권



지체들 소식

에바다부

일본 단기선교를 준비

에바다부에서는 처음으로 농아인을 대상으로 일본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25일부터 8월2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이타지방의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일본 단기선교를 위해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단기선교 참가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0여명의 단기선교참가자들이 일본 선교에 할 마임, 연극, 찬양을 연습하고 간단한 일본어, 일본어 수화 전도방법 등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라 성도님들의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에바다부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복음전도에 귀하게 사용하시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이미만 통신문)

6교구

하계 농어촌전도 행사

6교구에서는 7월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미산교회로 하계 농어촌전도 행사를 갑니다. 금년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알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월 3일: 한밭침례당(송음지).

봉사팀 오전 9시 출발(봉고)

7월 4일: 치과팀, 이·미동팀, 전도팀

오전 6시 30분 출발-교회앞(바스)

권사회

권사수련회를 마치고

지난 6월 26일과 27일에 있었던 권사수련회를 통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시간시간 공급받아 권사님들은 흡족하였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진행된 잔치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권사님들과 젊은 권사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한데 어울려 찬양드리며 순박하며 울음으로 다같이 기쁨으로 가득하였다. 복음의 열매로 세운받은 권사님들 진심된 믿음생활로 타의 본이 되며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들의 입술에 담지 말아야겠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다. 이번 잔치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안이 뜨며 마음들이 넓어지고 정발 말씀 앞에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언정 불평만하는 누룩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권사회)

국내외국인선교부

외국인 헬퍼 선발 및 영성 훈련 가져

지난 6월 25일 주일 국내외국인선교부(이하 외선부)에서는 제2차 외국인 헬퍼 발탁식을 가진 후 오후에 헬퍼 전체영성훈련을 가졌다. 헬퍼와 교사가 총 60명 참석한 이번 영성훈련은 특강 설교, 전제기도회, 나라별 모임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헬퍼는 외선부에 소속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선발했는데 이들은 다른 외국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외선부의 특성상 한국인 봉사자들과 외국인 지체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하지 못해 외국인 헬퍼들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훈련받고 있는 50여명의 헬퍼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외선부 통신문)

첫 감사를 드리는 2000

김운 섭(집사, 초동부 교사)

칠월의 여름태양

온몸을 부르르떨면

해시게 한날 더위 당신의 날개 아래

초실절 구성진 가락

보리베는 저 농부

천, 지, 인(天, 地, 人) 더불어서

살아온 못 선조들

시내산 아래마을 저 농가 분주하다

유대인 농경 축하제

내러오는 미풍양속(美風良俗)

지척(咫尺)이 모두 모여

어울림이 고와라

얼씨구 절씨구나 흥이 나는 정겨움

맥추절 리없는 마음

초대밭은 우리 잔치

가슴이 뜨거워라

드린 손길 따스여라

부리로 치켜올린 동전 한낱 농칠세라

계신 곳 당신 공간에

차곡차곡 쌓은 보화

증현 지상교회학교
(紙上敎會學校)

운동장

교실

죄

①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에는 죄에 대한 지적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로마서 1장은 이것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1:18).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인간 사회에서 제시되는 윤리나 도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불의를 말한다.

②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불의란 무엇인가? 이것 역시 인간의 입장에서 윤리나 도덕적인 입장으로 정의해서도 안된다. 불의란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하고 시도한다고 해도 그 여전한 죄인으로 판단될 뿐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③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은 죄의 현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로마서 1:19에서 3:20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인간이 행하는 죄의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증세가 나타나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인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했던 이스라엘도, 윤리주의자들도, 이방인에게서도 죄의 증세가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④ 동물에게는 죄와 선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대로만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죄와 선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선악과를 보고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스스로 결정내린 것을 보면 분명하다.

⑤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대로 사한다는 것은 나의 판단과 가치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일이다. 늘 변화하는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읽어 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나의 가치판단과 사상 중심이 아니라 성경중심으로 나를 고쳐는 일이다.

2교구

서는 새벽기도회의 부흥을 위하여 수요일을 '2교구 동원의 날'로 정하고 기도회 참석으로 하겠다. 2교구의 부흥을 위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새벽기도회후 교육관 109호에서 따로 가진다고 한다.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실 있는 귀한 시간을 되찾아 보라.

초등

는 교사들에게 양승규 교사가 매주일 주어진다고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양승규 교사가 있어 아홉 선생님이기에 필요한 일일 듯 싶다. 본인의 영적성장을 위해서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나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듯 싶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최은기 기자)

